

“쓰레기문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 홍 식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일은 '나 혼자만'해서는 결코 온전히 보전될 수 없다. 그렇다고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환경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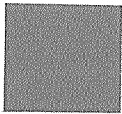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과거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 찌꺼기 정도가 고작이었고, 농촌도 퇴비 정도로 생각되어지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쓰레기 공해'라는 말을 찾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0~70년대 경제개발정책 및 각종 산업활동 결과 쓰레기 문제가 서서히 등장하더니 급기야 지금은 세계에서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탈바꿈해 버렸다.

한 사람이 하루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평균 2.2kg. 서울시민은 2.8kg으로 미국 1.3kg, 일본 1.0kg, 영국 0.9kg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다. 가정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탄재를 뺀 나머지 쓰레기만 가지고서도 우리나라는 쓰레기 발생량이(인구에 비례해서) 대단히 많은 편이다.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도시집중화, 경제발전에 따른 대량소비와, 편리성 추구에 따른 상품의 인스턴트화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과거 20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을 무려 2배나 넘어섰다. 폐기물이 이처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으로 자원이 그만큼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오염이 심각한 것은 산업쓰레기이다. 산업쓰레기 중에는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폐기물도 있어서 2차오염방지시설 없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토양·수질까지 오염시켜서 결국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쓰레기의 처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 매립·소각·자원 재활용·퇴비화 등이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폐기물 처리량의 대부분인 98%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도시에서는 매립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이다.

기업에서도 매립지 난이 가중되면서 철강, 화학 등 일부 산업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된 곳의 지역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집단 시위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매립장 건설은 많은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와 각종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쓰레기로 인한 각종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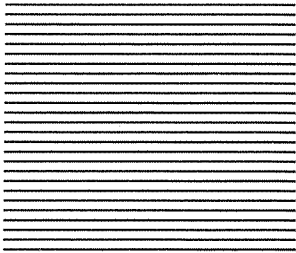
해결하는 길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면 먼저, 생산과정에서부터 기업은 제품을 과대포장하지 말고 그 수명을 길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버린다'는 인식을 새로이 하여 꼭 버릴것만 버리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

둘째로는 일단 배출된 쓰레기중 유용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하여 부피를 줄이며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회수하여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물론 소각처리는 대기오염을 방지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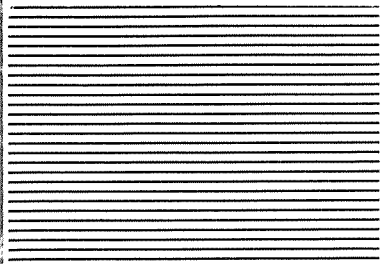
쓰레기 공해를 추방하려면,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일과, 이왕 버리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리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네째로 매립방식인데 이는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나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혹은 소각후 남은 재 등을 처리한다. 이때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메탄 등 유용한 가스는 재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쓰레기 처리방식들은 모두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최대의 관건이다. 분리수거를 함은 위생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91)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쓰레기 수거 자체를 거부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폐기물 관리법)



분리수거는 지역에 따라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 ①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설치중인 서울 양천구 목(1~6동), 의정부, 대구시·부산시 일부지역에서는 재활용품, 불에 타는 것, 기타 쓰레기로 분리하고
- ② 서울·인천·광주 등 139개 시·군·구에서는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등 3분류방법으로 분리하며
- ③ 대전 등 116개 시·군·구에서는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등 2분류방법으로 실시한다.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전하는 일은 '나 혼자만'해서는 결코 온전히 보전될 수 없다. 그렇다고 '나 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환경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쓰레기 공해를 추방하는 것도 바로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적게쓰고, 적게 버리는' 일과 이왕 버리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리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